



아버님께 대세를 주고 본당에 병자성사를 청했는데 대세자는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이지요?

사제로서 우리 신앙인들이 대세를 잘못 이해하고 남용하는 점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례로 환자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마지막 순간, 반대하는 친지의 눈을 피해서 적당히 물만 붓는 '한국식의 대세행위'는 사라져야 합니다. 이야말로 하느님의 은혜를 이용하고 교회의 선의를 악용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살아생전, 준비시키는 것이 백번 옳고, 이미 의식을 잃었다면 대세에 연연하기보다 믿음으로 하느님의 자비하심에 의탁하는 게 훨씬 유익하고 합당한 자세입니다. 그럼에도 성삼위 하느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모든 세례는 유효합니다. 따라서 병자성사를 비롯한 모든 성사를 받을 자격 요건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병자성사의 의미와 영성체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한 후에 병자성사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성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자에게 성체를 영해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가톨릭교회의 모든 성사는 그 의미를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는 성사입니다. 교회는 의미도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 마술처럼 성사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형제님의 대세로써 아버님의 영혼은 이미 순수하게 변화 받았다는 진리의 약속을 의심치 말고 믿으세요. 세례로 가장 순수한 상태가 되었는데 병자성사를 받지 않았다고 하늘나라에서 제외되겠습니까? 세례는 인간에게 자기 정체성을 되찾아 하느님의 자녀로써 그리스도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는 큰 축복을 선물합니다.

아버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늘나라를 위해 잘 준비하도록 이해와 사랑으로 돕는 것이 지상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효도입니다. 대세는 인간의 편의를 위한 조처가 아니라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주님의 안간힘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부성적 충고

(잠언 23,15-23)

시작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다.)
- 주님! 저희가 아버지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해주소서!
-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당신은 저희에게
진리의 길이시나이다.

하느님 말씀

진행자 • 한 분이 잠언서 23장 15절에서 23절
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25,15 내 아들이아,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내 마음도 기뻐하고
16 너의 입술이 올바른 것을 말하면
내 속도 즐거워한다.

- 17 너의 마음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날마다 주님을 열심히 경외하여라.
18 그래야 미래가 있고
너의 희망이 끊기지 않는다.
19 내 아들이아, 너는 잘 듣고 지혜로워져
너의 마음을 바른길로 이끌어라.
20 술을 폭음하는 자들과
고기를 폭식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마라.
21 폭음가와 폭식가는 가난해지고
늘 술에 취하면 누더기를 걸치게 된다.
22 너를 낳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어머니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마라.
23 진실을 구하되 팔아넘기지 마라.
지혜와 교훈과 예지도 그리하여라.

진행자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진행자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 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다.)
-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나서 따르길 잘 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나서 위의 잠언서 말씀 중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충고해 주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각자 나누어 봅시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가 딸이라도 하느님이 내 기도를 다들 어주시는 건 아니다. 그럴 리가 있나. 철부지가 밥은 안 먹고 만날 과자만 달란다고 그런 걸 받아주는 부모가 어디 있단 말인가.

그래서 나는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내 기도가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은 아닐까 의심해본다.

첫째, 내 기도가 터무니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공부하는 하나도 안 하고 ‘내일 시험에 백 점 맞게 해주세요.’ 하는 식의 기도 말이다. 이런 기도가 응답될 리 만무다. 진인사후대천명(盡人事後待天命)이다. 사람의 할 바를 다하고 나서야 도움을 구하는 게 순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고 있지 않은가.

둘째, 내 기도보다 다른 사람의 기도가 더 급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놀러 가려고 좋은 날씨를 달라고 기도하고 농부가 씨를 뿌리기 위해 비를 달라고 기도하면 당연히 농부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지. 나라도 그렇게 하겠다.

셋째, 내 기도를 들어줄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한겨울에 수박을 달라거나 기지도 못하면서 뛰게 해달라는 식의 때 이른 기도 말이다. 내가 아무리 신앙의 유아기에 있다고 해도 인간의 때와 하느님의 때가 다르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러나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아 애가 타들어가도 나는 굳게 믿는 구석이 있다. 결국에는, 중국에는, 끝에 가서는 하느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리라는 믿음이다. 나의 하느님은 사랑의 하느님이고 내 아버지인데, 그가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내게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주실 지는 하느님만이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분을 굳게 믿고 기쁜 마음으로 노력하며 기다리면 되는 거다.

(중략)

천길 벼랑 끝 100미터 전.

하느님이 날 밀어내신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시나?

10미터 전. 계속 밀어내신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미터 전.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미시진 않을 거야.

벼랑 끝. 아니야. 하느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아실 테니까.

그러나, 하느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어내셨다.

.....

그때야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한비야,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서〉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 토의

진행자 • 지날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한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 기도

진행자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 성가

진행자 • 가톨릭 성가 19장 “주를 따르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한다.)

|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공동체 |

-대방동본당 안민구역 남성소공동체 총무 이성렬(레오)-

창원 대암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 대방동본당은 프란치스코하비에르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고 2000년 1월 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초대 노영환 마티아 신부님께서 부임하신 이래 전체 10구역, 10개의 남성소공동체와 33개의 여성소공동체로 성장하였으며 현재 백남국 사도요한 신부님의 사목 아래 “사랑을 나누는 대방성당 - 순교 영성으로 세상의 복음화를!” 이라는 슬로건에 따라 소공동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방동본당의 소공동체들은 무엇보다 친교와 봉사활동을 통해 자칫 서로 무관심해지기 쉬운 4,000여명의 많은 신자들 사이에서 소속감과 책임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민 남성소공동체는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소공동체 구성원들의 가정을 순회하며 소공동체모임을 실시합니다. 모임에는 평균 15세대 20여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여 복음말씀을 나누고 활동 계획 등을 의논합니다. 모임을 마친 후에는 그 가정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서로 간의 소식과 정보를 나누고, 전입 및 신입 교우들이 신앙생활과 소공동체 활동에 쉽게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



습니다. 더불어 모임의 자리를 마련해준 가정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구성원들 간의 친교가 이루어지고, 모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소공동체원들은 본당의 크고 작은 활동에 먼저 참여하여 모범을 보임으로써 구성원들이 사랑의 실천에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회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이 모범이 되어 신입교우들도 자연스레 봉사에 동참하여 본당의 튼실한 봉사자가 되는 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봉사 활동 중 하나로 매월 셋째 주 일요일 아침 7시에 청소도구를 들고 안민 마을 구석구석을 청소합니다. 1시간 정도의 청소이지만 소공동체 구성원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유대관계가 돈독해집니다. 지난 7월에는 진해 초리도에서 가족동반 야외회를 실시하여 잠시나마 도시를 떠나 자연을 느끼고 즐기는 좋은 자리가 되었습니다.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서 사랑합시다.”(요한1서 3, 18)라는 말씀과 같이 앞으로도 구역장님을 중심으로 구성원들 모두가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안민 남성소공동체가 되겠습니다.